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02)737-0090(직)·737-8881(대)

현대불교

불교성지순례전문
관음도량 보타산, 항주 5일
4월 26일 699,000원
야호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10층(내선3401)
TEL(02)725-7595 / FAX(02)725-7923
E-Mail: yahotour21@hanmail.net

☎구독신청 02)737-0090·대표 02) 737-8881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4월 20일(음력3월 12일) 수요일 (주간) 제522호

투명한 재정…공정한 운영

조계종 잇따른 위법·의혹에 自淨 의지 천명… '총체적 개혁' 기대

조계종에 '자정(自淨)' 바람이 불고 있다. 불국사 불법 골프연습장과 국조보조금 횡령 등 일부 스님들의 위법행위가 기폭제가 돼 자정이 종단차원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을 비롯한 종단 고위스님들은 대책마련을 천명했으며, 총무원과 교구본사스님들도 '자정' 성명을 발표했다. 문제를 제기했던 불교계 단체들 역시 '객관적 조사기구' 등을 구성해 의혹들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힘을 보태고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흐름은 과거와 같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확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수면 위로 뜬 '자정'

교단자정 요구가 촉발된 계기는 문화연대의 기자회견. 문화시민운동단체인 문화연대는 4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골프연습장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분리징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불교환경연대, 참여불교재가연대(이하 단체들)도 4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불국사 골프연습장 및 주지 종상 스님의 호화요트 구입과 외환관리법위반 혐의, 화엄사 前 주지 명섭 스님의 국고보조금 횡령, 불교중앙박물관 건립 관련 의혹, 동국대의 교비전용 및 필동병원 매입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들은 의혹들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 모든 것을 밝히고, 종단도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불국사 골프연습장은 지난 15일 철거됐으며, 명섭 스님에 대해서도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4월 8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불교중앙박물관 관련 의혹은 조계종 총무원이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책임자 문책과 시공사 계약해지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동국대 관련 의혹은 조계종 중앙종회 내에 특위가 구성돼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스템 정비로 종단 거듭나야"

단체들은 성명발표 다음날인 13일 총무원장 법장 스님과 만나 △중앙박물관 문제에 대한 객관적 조사기구 구성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한 관리위원회 설치 △종단 각급 기관의 '직무수행 청규' 제정 △재정투명화를 위한 감사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법장 스님은 "종단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일반 및 특별감사에 재가자를 포함시키고 국고지원사업이행지침을 마련해 배포하며, 종무구조혁신위원회 등을 설치하겠다"고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은 14일 일련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자정의지를 밝혔다.

총무원은 성명에서 "종단은 이번 사태를 소중한 계기로 삼아 종단과 사찰의 운영을 투명하게 만드는 시금석으로 삼겠다"며 "모든 것을 사부대중이 함께 운영하는 열린종무행정 구현을 목표로 빠른 시일 안에 법적 제도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스님과 호계원장 월서 스님도 4월 14일 단체 대표들과 만난자리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종단어른들과 상의해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교구본사주지회의 결의문 채택

교구본사주지스님들도 자정 움직임에 동참했다. 14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결의문을 통해 "교구와 사찰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비롯한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또 "각종 불사를 진행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종단에서 시행하는 지침에 근거하여 투명한 종무행정을 구현함으로써 청정한 교단을 세우는 데 적극 협력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은 "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한 후 "환치기를 했거나 호화요트를 구입했다면 모든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날 것"이라며 일각의 의혹제기를 일축했다. 종상 스님은 또 "최근 불교계 안팎의 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2면으로 계속

"서로를 차이를 인정할 때 세계 평화도…." 전쟁 희생자를 위로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호마법회(護摩法會)'가 달라이 라마의 집전으로 4월 13일 일본 쿠마모토현 렌게인 탄죠유지사에서 봉행됐다. 사진/일본 쿠마모토=한상희 기자

'환영과 존경' 달라이 라마 일본법회 큰 인기

8일 도착후 일정 순조

"자비와 이타심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힘입니다."

티베트의 세계적인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4월 8일 오후 3시 메이지신궁 참배를 시작으로 12일간 일본 전국을 돌며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을 설했다. 달라이 라마는 도쿄 코쿠기칸 스모경기장(9일), 쿠마모토현 강당(10일), 큐수대학(12일 오전), 오쿠인사(12일 오후), 렌제인사(13일) 등에서 다양한 법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달라이 라마의 법회에는 매번 수천 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참석했으며, 그들은 모처럼 일본을 방문한 귀한 손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았다.

현대불교신문은 이번 행사의 공식 촬영팀으로 선정돼 달라이 라마가 일본을 떠나는 19일까지의 일정을 함께 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관련기사 5면

간화선 대중화 위한 10대 선사 초청 설선대법회

법주: 원융 스님 / 4월 23일 오후 2시 범어사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

도피안사·本社, 제1차 '구국구세 대법회' 마련

5월 1일부터 10주간, 전문가 주제 강연

가정의 가치를 불교의 연기와 중도의 가르침으로 제고해 보는 대규모 법회가 열린다.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는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은 무엇인가 – 새로운 가정의 가치를 찾아서'를 주제로 제1차 구국구세 대법회를 봉행한다. 5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도피안사 대웅전에서 열리는 법회에서는 스님 가정관리학자 의사 등이 강사로 나와 주제 강연을 한다.

이번 법회는 가정의 붕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는 현실인식에서 기획됐다. 때문에 강사들은 가정의 가치를 '연기와 중도'라는 관점에서 찾아낼 계획이다.

가정의 가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사회의 가치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인과적 등식을 확인하고 그간의 삶의 형태와 관습, 변화하는 사회상에 따른 윤리의 붕괴 등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진단한다. 인간의 보편적인 행복과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가정의 가치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법회를 기획한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은 "가정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이는 보살도의 실천도 불가능한 것"이라 전제하고 "이번 법회는 반야바라밀의 실천적 토대인 가정의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깨달음의 사회를 구현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 말했다.

도피안사는 법회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서울 지하철 사당역8번 출구 앞에서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매주 강연의 핵심내용은 현대불교 지면을 통해 소개된다. 법회문의(031)676-8700도피안사 종무소.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 도피안사 구국구세 대법회 일정 및 주제 (오전 10시 30분 도피안사 대웅전)

월	일	강사	강연주제
5	1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부처님은 가정과 부부를 어떻게 보는가
	8	서명원 신부(서강대 교수)	서양인은 한국의 가정을 어떻게 보는가
	15	안숙선(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판소리 '불타전' 중 부처님 탄생부분 음성공양
	22	조희금(대구대 교수)	오늘날 한국가족의 모습은 어떠한가
	29	옥선화(서울대 교수)	모두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6	5	정현숙(상명대 교수)	부부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12	고성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연구위원)	부모와 자녀관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19	최혜경(이화여대 교수)	부모와 자녀관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성인자녀와 노부모)
	26	김외숙(방송대 교수)	불자가족의 가정관리
7	3	최훈동(한길정신병원장)	바람직한 가정과 부부상

'할'

그림·조태호

지환 스님의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 24·25면에